



젖먹던 힘까지... 한국 김우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엑스포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역도 남자 77kg 경기 인상에서 2차 시기 160kg의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상 金 48개 ‘메달 보따리’ 풀린다

내일 오전 男 마라톤부터 시작... 혼성 1600m 계주 추가돼
여자 100m 허들 정혜림·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전 기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진짜 스포츠’ 육상이 개막한다. 이번 대회 육상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6시 출발하는 남자 마라톤을 시작으로 30일 오후 8시 40분 남자 1,600m 계주까지 총 48개 종목을 치른다. 금메달 수도 이전보다 한 개 많은 48개(남자 24개, 여자 23개, 혼성 1개)다. 기존 종목에 혼성 1,600m 계주를 정식종목으로 추가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의 서막은 남자 마라톤이 연다. 현지 교통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오전 6시에 마라톤을 시작한다. 남자 마라톤을 가장 기다리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 남자 마라톤 참가자 중 최고인 2시간06분54초의 기록을 보유한 이노우에 히로토와 올해 2시간09분34초를 뽐 소노다 하야토가 출전한다. 한국에서는 김재훈(한국전력·개인 최고 2시간13분24초)과 신광식(강원도청·개인 최고 2시간14분

05초)이 이번을 노린다. 여자 마라톤은 하루 뒤인 26일 오전 6시에 열린다. 한국 육상 관계자들은 여자 마라톤에서는 메달을 기대한다. 2시간25분41초의 한국 기록을 보유한 김도연은 올 시즌 아시아 랭킹 6위에 올라있다. 한국 여자 마라톤은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이미옥이 동메달을 딴 이후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마라톤을 시작으로 육상 종목은 대회 성화가 불타는 겔로라 봉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끊임 없이 경기를 치른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은 단연 남자 100m다. ‘아시아의 불트’ 쑤빙톈(중국)이 유력한 우승 후보다. 쑤빙톈은 올 시즌 두 차례나 아시아 최다 타이인 9초91을 뒀었다. 9초97로 2018년 아시아순위 공동 2위인 세전예(중국)와 바라캇 무바라크 알하르티(오만)이 쑤빙톈을 견제한다.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

(광주광역시청)도 아시아 최정상급 스피린터에 도전장을 내민다. 남자 100m는 25일에 예선, 26일에 준결선과 결선을 벌인다. 쑤빙톈 외에도 2017 런던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투포환 우승자 공리자오(중국), 2016년 리우 올림픽 2위·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 3위에 빛나는 일본 남자 400m 계주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주 경기장을 누빈다. 은퇴한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혼성 1,600m계주도 새로운 볼거리다. 혼성 1,600m 계주는 27일 예선을 치르고, 28일 금메달 주인공을 가린다. 4년 전 인천에서 노골드(은 4, 동 6)를 기록한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기대한다. 2018년 여자 100m허들 아시아 랭킹 2위 정혜림(광주광역시청)은 가장 금메달에 접근한 선수다. 시즌 개인 최고 기록 13초 11을 세운 정혜림은 우수이자오(중국·13초08)와 1위를 놓고 다툰 전망이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3위 진민섭(여수시청), 남자 200m 6위 박태건(강원도청), 남자 높이뛰기 6위 우상혁(서천군청)도 아시아 정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다. /연합뉴스

“金の환향 하겠습니다”

야구대표팀 출국... 26일 대만과 첫 경기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표팀은 지난 18일 소집해 서울 잠실구장에서 컨디션 조절에 중점을 두고 나흘 동안 훈련을 소화했다.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으로 당초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는 23일 항공기의 무더기 결항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 예정대로 오후 5시 15분 이륙했다. 선동열 감독은 출국 수속을 마친 뒤 “태풍으로 혹시라도 항공기가 결항하면 선수 컨디션 조절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기수를 끌어내렸다. KBO리그 정규시즌을 진행하는 도중 소집된 대표팀은 공식 훈련에서 기술보다는 컨디션 조절과 호흡 맞추기에 공을 들였다. 선 감독은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가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왔다”면서 “선수단에는 체력을 강조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대표팀의 경쟁 상대는 일본과 대만이다. 일본은 전원 사회인(실업) 야구 선수로 구성했지만, 투수 전원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국제대회마다 한국을 괴롭혔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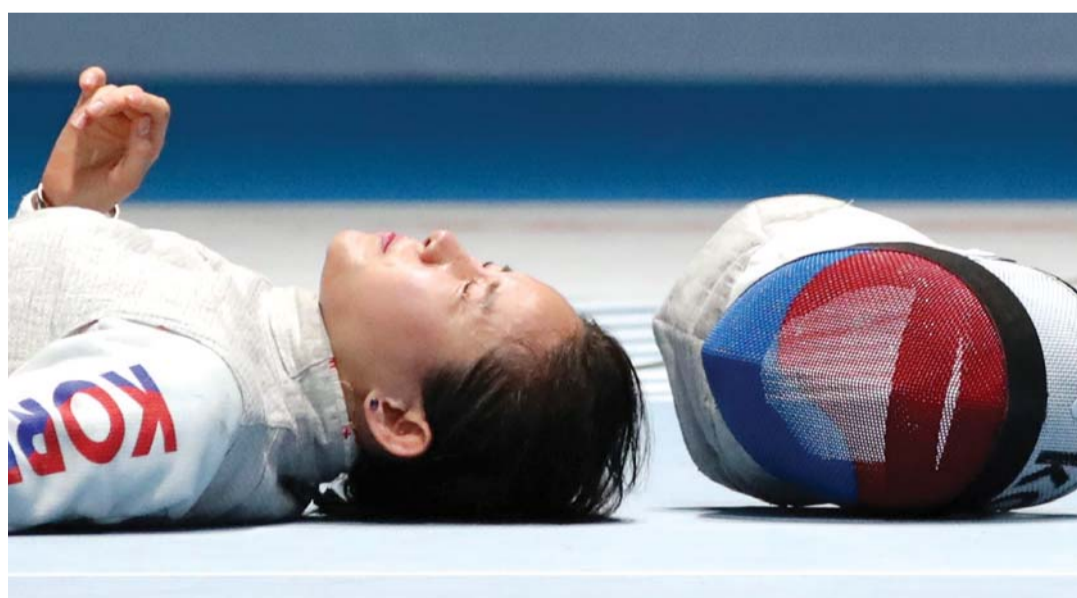
선동열 감독

만 역시 쉽게 볼 수 없는 상대다. 선 감독은 26일 대만전 선발을 공개할 수 있는 날은 질문에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며 “대신 선수 본인에게는 (경기를 준비하도록)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23일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기념해 제정된 ‘야구의 날’ 10주년에 한국을 떠나는 선 감독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24일과 25일 공식 훈련을 소화한 뒤 26일 대만과 B조 예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회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효자종목 ‘흔들’

펜싱 여 플뢰레 단체전 6연패 좌절
양궁 女 리커브 개인전 줄줄이 탈락

효자종목 양궁의 메달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 여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16년 만에 정상을 내줬다. 한국 펜싱 여자 플뢰레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6연패 도전도 좌절됐다.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리커브 본선에서는 장혜진(32-LH)과 강채영(22-경희대)이 8강과 4강에서 차례로 탈락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관왕이자 세계랭킹 1위인 장혜진은 8강에서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 다이안다 코이루니사에 세트승점 3-7로 패했다. 이어진 준결승에서는 강채영이 중국 장신연과 팽팡한 접전 끝에 4-6으로 졌다. 강채영은 28일 동메달 결승전을 치른다. 이에 따라 여자 양궁에서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실패한 이후 16년 만에 개인전 정상을 내주게 됐다. 은메달조차 따지 못한 것은 양궁이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7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전희숙(34·서울시청), 남현희(37·성남시청), 채



23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플뢰레 준결승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8번째 경기에서 나선 ‘만인니’ 남현희가 맹추격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우(29·충북도청), 홍서인(30·서울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23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준결승에서 일본에 36-45로 저동메달이 확정됐다. 여자 플뢰레 단체전은 한국이 1998년 방콕 대회부터 2014 인천 대회까지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종목이다. 그중 3번의 우승을 함께한 남현희와 전희숙을 앞세워 정상 수성을 노렸으나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일본과의 리턴 매치에서 패하며 정상에서 내려왔다. 한국 여자 플뢰레의 간판 남현희는 이번 대회에

서 금메달을 추가하면 아시안게임 통산 7번째로, 한국 선수 하계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라 2연패를 달성한 전희숙은 2회 연속 2관왕을 노렸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한국 조정 사상 아시안게임 네 번째 금메달에는 딱 1.2초가 모자랐다. 조정 여자 더블스컬 결선에서 김슬기(29·수원시청)-김예지(24·충주시청) 조는 연-리장링(중국·7분 33초 55)에 1.2초 뒤진 7분 34초 73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인어공주’ 김서영, 메달 다시 한번

오늘의 아시안게임

주종목 수영 개인혼영 200m 출전
체조 도마 김한솔·리세광 남북 대결
펜싱 남 플뢰레·여 에페 단체전
여자축구, 홍콩과 8강 격돌

개인혼영 400m에서 은빛 역영을 펼친 김서영(24·경북도청)이 자신의 주종목인 200m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한다. 안세현과 함께 한국 여자수영의 ‘쌍두마차’인 김서영은 400m보다 “더 자신있다”고 했던 200m에서 다시 한번 오하이 유이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기계체조에선 남자 에이스 김한솔(23·서울시청)이 도마 메달에 도전한다.

김한솔은 지난 20일 도마 예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050점을 획득해 5위의 성적으로 결선에 진출했다. 예선에서도 2차 시기에서 난도를 낮췄지만 결선에서는 난도를 0.4점 끌어올려 메달을 공략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북한 리세광과도 불꽃 튀는 남북 맞대결도 예상된다. 펜싱은 메달 레이스 마지막 날을 맞아 여자 에페와 남자 플뢰레 단체전이 열린다.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우승한 강영미(광주 서구청)는 2관왕에 도전한다. 패자부활전을 거쳐 올라온 조정 남자 에이트의 남북 단일팀은 결선을 치른다. 남측 강지수(21·한국체대), 김동현(24·인천항만공사), 권승민(20·한국체대), 명수성(19·한국체대), 홍훈(21·한국수자원공사)과 북측 리현몽, 최명학, 최광국, 정광복으로 이뤄진 단일팀은 다른 5개팀과 메달을 놓고 다툰다.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홍콩과 8강전에서 격돌한다.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기본 좋게 통과한 윤덕여 호는 약체인 홍콩도 무난히 격파하고 메달을 향한 여정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